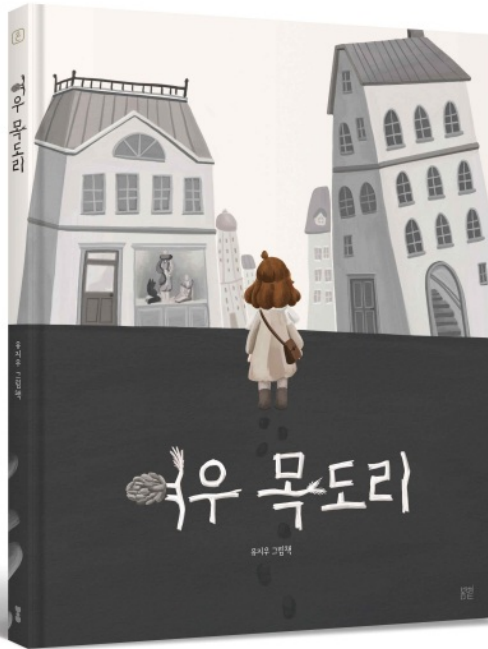


여우 목도리



여우 목도리에 담긴 인간의 탐욕과 후회를 적나라하게 그려 낸 작품. 한쪽에서는 여우를 돌보는 소녀의 음성으로, 반대쪽에서는 소년이 돌보는 여우의 음성으로 이야기하는 양면으로 보는 그림책이다. 아이는 어미 잃은 아기 여우를 집으로 데리고 온다. 아이가 잘 돌본 여우는 건강해진다. 인간의 탐욕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동물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여우 발자국이 있는 장면에 아티바이브 앱을 비추면 놀라운 동영상을 볼 수 있다.

유지우 지음 / 봄별

주제	인간의 욕심과 환경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생명의 소중함 알기
권장 차시	8차시
대상 학년	3~4학년
관련 주제어	멸종위기 동물, 욕심, 탐욕, 여우 털, 털목도리, 환경, 생명의 소중함, 감사
교육 과정 연계	국어 [4국01-03]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듣고 말한다. [4국03-03]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4국05-02] 인물, 사건, 배경에 주목하며 작품을 이해한다. [4국05-04] 작품을 듣거나 읽거나 보고 떠오른 느낌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도덕 [4도04-01]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인간 생명과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인간 생명과 자연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작성자	서울가재울초등학교 전은주 선생님

■ 도서 소개 (출판사 책 소개)

두 가지 이야기가 가운데에서 만나는 그림책

《여우 목도리》는 2022년 현대어린이책미술관에서 주관한 <언프린티드 아이디어 Unprinted Ideas>에 선정된 작품으로 현대어린이책미술관에서 전시를 통해 처음으로 독자들을 만났다. 전시 기간 동안 독자들의 투표를 통해 가장 인기 많은 두 작품을 뽑았다. 현대어린이책미술관은 뽑힌 두 작품에게 출판지원금을 지원하는데, 뽑힌 작품이 바로 《여우 목도리》이다. 그림책으로 출간되기 전부터 독자들에게 사전 인증을 받아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여우 목도리》는 양쪽으로 보는 그림책이다. 앞표지 뒤표지 모두 하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표지에 해당한다. 어느 쪽으로 읽어도 상관없다. 책 가운데에서 두 이야기가 만난다. 눈보라가 날리는 면지를 지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사냥꾼의 여우 목도리가 햇빛 아래에서 황금색으로 반짝이는 걸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점점 여우 목도리를 갖고 싶어 했고 사냥꾼들은 여우를 잡는 데 혈안이 되었다. 사람들이 여우를 잡고 또 잡자 여우가 점점 사라져갔다. 그제야 사람들은 여우 목도리를 하고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여우 목도리를 하고 다니지 않게 되었다. 안전하다고 느꼈을 때 여자아이는 여우를 데리고 숲으로 갔다. 숲에 여우를 놓아주려던 순간 어디선가 부스럭 소리가 들렸다. 여자아이와 여우 앞에 나타난 이는 과연 누구일까?

■ 학습 목표

-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듣고 말할 수 있다.
- 인물, 사건, 배경에 주목하며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 인간의 욕심과 동물 희생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쓸 수 있다.
- 『여우 목도리』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동물 생명 보존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짐할 수 있다.

■ 수업 준비

추운 겨울, 동물의 털로 만든 옷을 입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동시에 많은 곳에서 동물의 털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한다. 이러한 동물의 털 제품은 의류, 장식품 등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지는 동물의 털 제품은 여우의 경우 성인 코트 한 벌 기준으로 20마리가 희생된다고 한다. 『여우 목도리』 그림책은 여우를 돌보는 학생의 입장과 부모를 잃은 여우의 입장에서 인간의 욕심을 바라보게 하고, 동물의 털을 이용한 제품 생산의 문제점을 생각하게 한다. 그림책을 읽으며 동물의 털을 이용한 제품 판매의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고 실제 관련 기사를 함께 보면서 문제를 인식하고 제안하는 글을 쓸 수 있게 구성하였다. 희생되는 동물의 입장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동물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물건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토의해 보면서 책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생명 존중의 마음과 실천 의지를 기르기를 바란다.

수업 준비물 활동지, 색연필이나 색사인펜, 태블릿PC나 휴대전화 등

■ 학습 과정

읽기 단계	주요 활동	차시
읽기 전	마음 열기 표지 살펴보기	2차시
읽는 중	내용 파악하기 - 함께 읽으며 내용 확인하기 소감 나누기	
읽은 후	이야기 만들어 낭독극 하기 -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이야기 만들기 - 인물의 입장을 달리하여 사건, 배경에 따라 이야기 만들기	2차시
	제안하는 글쓰기 - 신문 기사 보기 - 제안하는 글쓰기	2차시
	표지 창작하기 - 《여우 목도리》 표지 창작하기 - 발표하고 전시하기	2차시

읽기 전

1. 마음 열기

- 영상 보기 _ <인간도 멸종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qUCO-UZCCo>

- 동물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나요?
예) 도시를 만드는 무분별한 개발이요./ 외래종이 유입되어 잡아먹혔어요.
/ 화석연료의 사용이 늘어 북극곰과 펭귄이 사라졌어요.
- 동물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고 하지요?
예) 인간도 사라질 것이라고 했어요./ 동물들이 사라지면 인간도 살 수가 없어요.
- 선생님과 오늘 함께 읽을 그림책도 사라져가는 어떤 동물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봅시다.

2. 표지 살펴보기

■ 표지 보고 내용 예상하기

- 오늘 함께 읽을 책입니다. 그림만 보여줄게요. 이 책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예) 도시로 간 소녀/ 외로운 소녀/ 어두운 도시/소녀는 어디로 갈까?

- 다양한 제목이 나왔네요. 진짜 제목을 알아보을까요? 여우 목도리네요. 이 제목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예) 글자가 나뭇가지와 솔방울 같은 것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숲에 있는 여우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추운 겨울에 소녀가 여우 목도리를 하게 되는 과정이 나오는 이야기 같아요.

- 표지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예) 소녀가 도시를 바라보고 있어요.

소녀가 도시의 목도리 파는 상점을 보고 있어요.

도시엔 사람이 없어요. 소녀만 남았나봐요.

소녀의 발자국이 보이고 소녀가 목도리를 한 걸로 보아 겨울에 집으로 가는 것 같아요.

동물이 멸종되어서 사람도 모두 사라지고 소녀만 남았을 것 같아요.

Tip. 표지를 자세히 보며 충분히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

■ 표지 펼쳐보기

- 표지를 펼쳐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예) 앞면과 뒷면이 뒤집혀 있어요./ 앞뒤로 보는 그림책 같아요.

앞면에는 소녀, 뒷면에는 여우가 있어요./ 서로 바라보는 곳이 달라요.

- 앞과 뒤의 표지를 보면 어떤 점이 다른가요?

예) 앞면은 검은 바탕에 하얀 글씨이고 뒷면은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예요.

도시는 밝은데 숲은 어두워요.

- 표지를 만져볼까요? 어떤 느낌인가요?

예) 부드럽고 푹신해요./ 약간 입체적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손에 느껴지는 느낌이 좋아요.

- 앞과 뒤의 표지 제목과 그림, 색의 의미를 생각하며 그림책을 보아도 좋겠네요.

■ 면지 살펴보기

- 그림책의 그림은 면지에도 의미를 담고 있어요. 면지의 그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겨울이에요./ 눈도 많이 와서 춥게 느껴져요.

추운 겨울 여우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 자 그럼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그림책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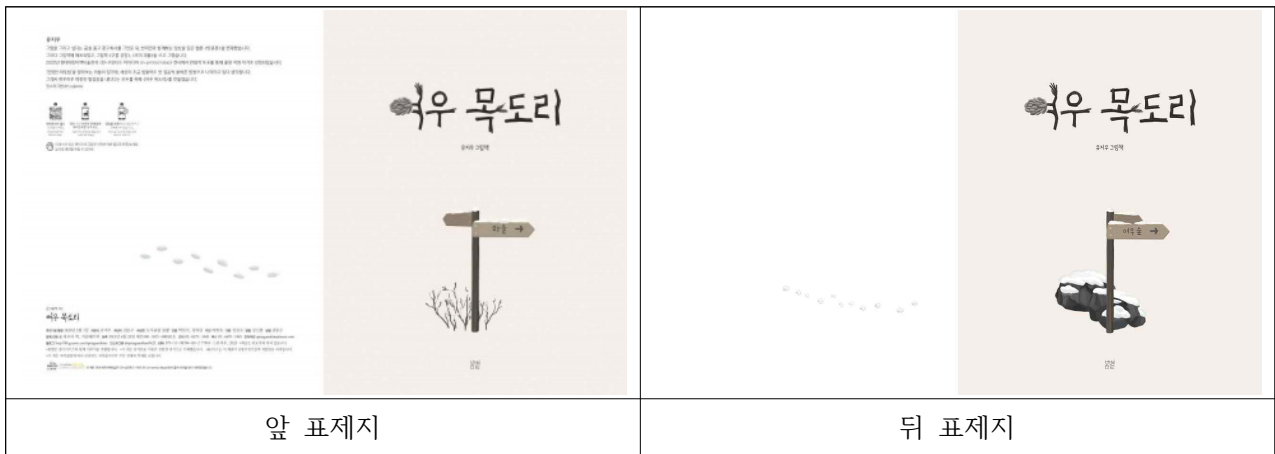
읽는 중

1. 내용 파악하기

■ 앞과 뒤를 나누어 따로 읽으며 내용 확인하기

- 가운데 사냥꾼 아저씨를 보세요. 무엇을 하고 있지요?
예) 여우털 목도리요/ 햇빛 아래서 황금색으로 반짝이는 여우털 목도리요.
- 사냥꾼을 보는 사람들의 표정은 어떤가요?
예) 한 남자는 웃으면서 호기심으로 봐요./ 할아버지는 인상을 쓰고 있어요.
모자 쓴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며 어디서 구했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 왜 사람들은 날마다 숲에서 여우를 잡았나요?
예) 여우 목도리를 갖고 싶어서요.
- 혼자 떨고 있는 아기 여우를 소녀는 어떻게 했나요?
예) 안고 집으로 데려왔어요.
- 무엇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지요?
예) 처음에 발자국이 소녀랑 여우 발자국이 있었는데 여우도 없고 소녀 발자국만 있어서요.
- 바깥세상을 그리워하는 여우에게 소녀는 어떻게 하였나요?
예) 아기 여우를 데리고 몰래 나갈 방법을 고민했어요.
- 이 책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핸드폰을 책의 그림을 대어 볼게요. 어떻게 되
는지 자세히 보세요.
예) 와~ 여우가 움직여요./ 여우 꼬리가 움직여요./ 여우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 증강현실이라고 해요. 이 책의 곳곳에 숨겨져 있답니다. 곳곳에 숨겨진 비밀을 보면서 책을 다시 보
습니다. 소녀가 여우를 데리고 나갈 방법을 고민하더니 결국 어떻게 데리고 나가기로 하였나요?
예) 여우를 목에 두르고 심장 소리를 느끼며 데리고 나갔어요.
- 아기 여우를 들키지 않고 산책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예) 강아지 산책시키듯이 목줄을 하고 데리고 갈 것 같아요. 여우 로봇이라고 말하면서요.
상자에 구멍을 뚫어서 상자 안에 넣고 상자를 안고 갈 것 같아요.
- 여러분만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아기 여우가 밖에 다닐 수 있으면 좋겠네요. 밖에 데리고 나간 소녀
는 왜 아기 여우를 끌어안고 달렸나요?
예) 아기 여우가 죽은 여우 목도리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아기 여우가 상처받을까 봐요.
- 사람들이 여우를 잡고 또 잡자 어떻게 되었나요?
예) 숲 어디에서도 여우를 볼 수 없었어요./ 숲에서 여우가 사라졌어요.
- 여우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나요?
예) 여우 목도리 만든 것을 후회했어요./ 여우 목도리를 가진 것이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 아기 여우가 안전해졌다고 생각한 소녀는 어떻게 하였나요?
예) 아기 여우를 숲 개울가에 놓아주었어요.

- 뒷면에서 다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앞의 표제지와 무엇이 다를까요?



예) 앞 표제지의 표지판은 마을로 향하는데 뒤 표제지의 표지판은 여우 숲으로 되어 있어요.

-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앞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이고 뒤에서부터 보는 것은 여우 숲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앞에서부터 읽는 것은 마을에 사는 소녀의 이야기이고 뒤에서부터 읽는 것은 여우의 뒷모습이 있었으니까 여우의 이야기 같아요./ 뒤 표지에서 여우가 바라보고 있는 숲이 여우 숲이었나 봐요.

- 자, 그렇다면 정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며 뒤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 아기 여우의 아빠와 엄마는 왜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예) 사냥꾼이 잡아갔어요./ 아까 앞에 나왔던 사냥꾼의 여우 목도리가 되었어요. 아빠 여우가 황금빛 털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아빠 여우가 죽었어요.

- 소년이 아기 여우에게 가져다주는 바깥 선물에서 왜 친구들 냄새가 얼어졌을까요?

예) 사람들이 마구 잡아서 여우가 없어졌어요./ 숲에서 여우가 사라졌어요.

Tip. 소녀의 입장에서와 여우의 입장에서 글이 앞뒤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개울가에서 서로 마주 보는 장면까지 읽어주고 뒤에서 다시 읽기 시작한다. 이때 학생을 2명 또는 두 팀으로 나누어서 읽도록 해도 좋다.

2. 소감 나누기

■ 인상 깊은 장면 나누기

- 그림책을 읽고 알게 된 것, 인상적인 장면,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해 봅시다.

예) 그림책 앞 장면의 사냥꾼 여우 목도리가 소녀의 집에 있었던 여우의 아빠 같아서 속상했어요. 노란 여우의 아빠가 황금빛 털을 가졌다고 했었거든요.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서 목도리로 하고 다닌다는 것에 화가 나요./ 소녀가 아기 여우를 데리고 뿔 때 검은 여우 그림자가 따라오는 장면이 무서웠어요. 실제로 움직이며 따라오는 것 같아 아기 여우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사람들의 욕심에 여우가 죽고 여우가 사라지는 것이 슬퍼요. 사람들이 동물을 아파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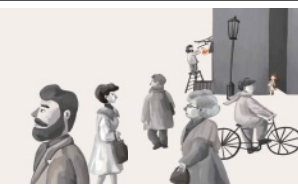
읽은 후

1. 이야기 만들어 낭독극 하기 [활동지 1 참고]

■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이야기 이어가기

- 《여우 목도리》 그림책에는 이야기의 원인과 결과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림책 그림의 일부를 보고 순서에 맞게 오려 붙여서 이야기의 원인과 결과를 적어봅시다.

(예시자료)

			
예) 사람들은 여우 목도리를 갖기 위해 여우를 사냥했다.	예) 여우가 귀해지자 사람들은 여우를 잡고 또 잡았다.	예) 숲에서 여우가 모두 사라졌다.	예) 사람들은 여우 목도리 만든 것을 후회하고 여우 목도리를 하지 않았다.

■ 인물의 입장을 달리하여 이야기 꾸미기

- 소녀와 소년의 입장에서 배경의 변화를 생각하며 그림을 오려 붙여서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

(예시자료)

			
예) 숲에 갔는데 아기 여우가 눈 속 작은 굴에서 떨고 있었다.	예) 아기 여우를 집으로 데려와 먹을 것도 주고 놀아주었다.	예) 답답해하는 여우를 산책시키려고 거리로 데리고 나왔다.	예) 아기 여우가 건강해져서 숲에 다시 데려다 주었다.

- 여우의 입장에서 사건을 중심으로 그림을 오려 붙여서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

(예시자료)

			
예) 추워서 혼자 떨고 있는데 한 아이가 왔다.	예) 아이가 주는 먹이도 먹고 잠도 자며 놀았다.	예) 아이와 산책을 나왔는데 익숙한 숲이 아니었고 사람이 많았다.	예) 풀과 나무의 냄새가 가득한 숲 저편에서 친구를 만났다.

- 원인과 결과, 인물·사건·배경에 따른 이야기 전개를 생각하며 낭독극을 해 봅시다. 함께 만난 두 마리의 여우가 어떻게 되었을지 뒷이야기까지 상상하여 이야기를 만들면 더 좋겠네요.

■ 낭독극 발표하기

- 우리 친구들이 그림을 붙이며 만든 이야기를 낭독극으로 발표해 봅시다.

Tip. 학생들이 낭독극으로 이야기를 발표할 때에 그림을 크게 프린트하여 학생이 칠판에 그림을 붙이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여도 좋다.

- 우리 친구들의 낭독극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멋진 뒷이야기까지 생각하며 낭독극 발표를 해주었는데요, 이 이야기의 여우들은 어찌 되었는지 아티바이브 앱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제안하는 글쓰기 <활동지2 참고>

■ 신문 기사 보기

- 동물의 털을 이용하여 의류나 여러 제품을 만든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학습지에 제시된 기사를 읽어보고, 그 외에도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관련 기사를 더 찾아 읽어 봅시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또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예) 많은 동물이 고통스럽게 희생되고 있어요./ 너무 불쌍해요.

우리나라 여우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패션 제품과 동물의 희생' http://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407	'옷 한 벌 살 때마다 수십 마리의 동물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http://www.sobilif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25	'동물의 털은 동물이 입을 때 가장 빛납니다'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70217172590651

- 동물의 털을 이용한 제품들이 왜 만들어질까요?

예) 사람들이 멋을 위해 찾기 때문이에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더 따뜻한 옷을 찾기 위해서요.

- 추운 날씨에 동물의 털 옷을 입어야만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예) 동물의 털 말고도 다른 것으로 만들어진 것을 입을 수 있어요.

- 그렇다면 동물의 털 대신 어떤 옷을 입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찾아볼까요?

예) 동물의 가죽이나 털을 사용하지 않고 무차별한 동물의 희생을 막자는 비건패션이 있어요.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비건패션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예) 동물의 털로 만들어진 옷은 사서 입지 않아요./ 비건패션에 참여하는 기업 제품을 사요./ 동물의 털 옷을 입지 말자는 캠페인을 하거나 캠페인에 참여해요./ 여우 목도리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여우 목도리를 하는 것이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해요./ 동물의 털 옷을 만드는 기업이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요.

Tip.  '동물 털로 옷을 만들었다고요? 하는 시대가 오겠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wild_animal/920113.html)

■ 제안하는 글쓰기

- '여우 목도리'에 대한 신문기사가 있네요. 신문 기사를 참고하여 동물의 털 사용에 대한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글로 써 봅시다. 글을 읽는 사람에게 글을 쓴 의도가 잘 전달되도록 하는 제안하는 글쓰기로 써보려고 합니다. 제안하는 글은 문제 상황에 대하여 제안하는 내용, 제안하는 까닭이 잘 나타나야 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제안하는 글을 쓰고 싶은가요?
예) 동물의 털을 얻기 위해 동물을 잡아서 가두어 키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고 싶습니다. 동물들에게도 생명이 있는데 너무 나쁜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해요./ 동물의 털로 옷을 만드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안하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불쌍하게 죽은 동물의 털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어 파는 기업이 있으니까 동물들이 더 희생되는 것 같아요./ 동물의 털을 찾는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게 하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동물의 털 옷을 찾으니까 동물들이 희생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의 털 옷을 찾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친구들이 동물의 희생에 대한 문제 상황을 잘 인식하고 제안하는 글을 쓸 대상을 알맞게 생각하였네요. 자신의 생각이 잘 드러나게 제안하는 글을 써 봅시다.

3. 표지 창작하기 [활동지 3 참고]

■ 그림책 표지 창작하기

- 『여우 목도리』 그림책을 읽고 그림책이 주는 의미를 생각하며 여러 활동을 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표지를 그린다면 어떻게 그럴지 생각하여 자유롭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표지에 무엇이 잘 나타나게 하고 싶은가요?
예) 숲은 원래 여우의 것이었고, 여우가 숲에서 잘 지내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요.
여우와 사람이 함께 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그리고 싶어요.
여우 목도리를 한 사람들과 슬픈 여우를 그려보고 싶어요.
-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느낌이 잘 나타나게 표지를 그려봅시다.

■ 발표하고 전시하기

- 우리 친구들의 여우 목도리 표지가 멋지네요. 「여우 목도리」 표지를 그리면서 생각한 느낌을 발표하고 모든 친구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소년과 소녀가 보호한 여우가 숲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동물의 털을 이용한 물건을 사지 않고 동물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동물들이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 희생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시 작품)

한겨레

2023년 02월 11일
36면 (문화/출판)

뽀로로 친구 에디가 자유롭게 뛰어놀려면



여우 목도리
유지우 글·그림 | 분별
1만8000원

전래동화의 주인공, 애니메이션 <뽀로로> 속 '에디'를 통해 여우는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이다. 그러나 여우는 환경부가 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동물이다. 1950년대에 흔히 볼 수 있던 여우는 쥐잡기 운동의 2차 피해(쥐약 먹고 죽은 쥐를 먹은 여우도 피해), 목도리 털을 얻기 위한 사냥 등의 이유로 1980년

대 후반 멸종됐다고 한다. <동아일보> 1991년 3월10일치 기사는 "털을 탐낸 남획도 계속됐으며 서식처도 점차 없어졌다"며 "남한에서 여우가 살고 있음이 최종 보고된 것은 87년"이라고 전한다. 다행히 2012년부터 여우 복원사업이 시작돼 소백산국립공원 등에 개체 수를 늘려가고 있다고 한다.

목도리 노린 어른들의 여우 사냥
여우 모두 사라지자 뒤늦게 후회
여우를 보듬은 두 아이의 마음
숲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풍경



유지우

그림책 <여우 목도리>는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여우가 사라진 세상에서 다시 희망을 그리는 책이다. 무거운 주제지만 따뜻하고 귀여운 그림체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 책은 양쪽으로 보는 그림책이다. 여자아이가 있는 표지를 펼쳐도 되고, 노란 아기 여우의 뒷모습이 그려진 표지에서 시작해도 된다.

다. 사람들은 숲의 여우가 모두 사라진 뒤에야 자신들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후회한다.

여우 목도리를 갖고 싶어하던 사람들은 날마다 숲에서 여우를 사냥한다. 여자아이는 부모를 잃은 붉은 아기 여우를 집에 데려와 돌보지만, 여우와 함께 거리를 나갔다가 여우 목도리를 두른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받는다. 노란 여우의 시선을 따라가도 마찬가지다. 노란 여우는 자신을 구해준 남자아이와 함께 거리를 나갔다가 목도리가 돼 축 늘어진 여우의 모습에 눈을 질끈 감는

그러나 저자는 후회에서 멈추지 않는다. 두 아이와 두 마리의 여우를 '책가운데' 숲에서 만나게 한다. 여우를 보듬었던 두 아이의 마음은 인간의 과오를 반성하고 미래를 다시 꿈꾸는 밑줄을 놓는다. 이 책엔 휴대전화 앱을 통해 특정 페이지를 비추면, 움직이는 영상이 뜨는 '증강현실'이 적용됐다. 두 여우가 숲을 뛰어노는 장면이 휴대전화를 비추면 우리가 다시 살려야 할 '새로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동물과 더불어 사는 세상] 털과 가죽 빼앗기는 동물들

http://kid.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1/2018121102244.html

털·가죽 채취, 이제 그만!... “동물에게 고통 주는 옷, 싫어요”

사람들은 겨울을 따뜻하게 나기 위해서 동물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어요. 동물들은 태어나서부터 털을 빼앗기는 순간까지 고통스러운 생을 보내죠. 동물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동물, 자연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겨울 점퍼 속 오리털, 어떻게 얻었을까?

오리가 잃어버린 털은 사실은 사람들이 뺏어 간 거예요. 옷을 만드는 데 쓰려고 그런 거지요. 오리털로 만든 옷은 가벼우면서도 따뜻하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찾는 사람이 많거든요. 사람들은 털을 많이 얻으려고 살아 있는 동물의 털을 뽑아요.

털을 잃어버린 동물들은 체온 조절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또 강제로 털을 뽑는 것은 동물한테 너무 아픈 일이어서 쇼크로 죽는 경우도 있어요. 피부병에 걸리는 건 흔한 일이고요. 그런데도 털이 자라면 사람들이 또 뽑아요. 서너 번이나 다시 뽑지요. 오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거위, 토끼, 양, 너구리, 여우, 밍크 등 수많은 동물의 털을 가져가요.

고통스럽게 살다가 최후를 맞는 동물들

옷을 만드는 회사에서 털을 가져가려고 키우는 동물도 닭이나 돼지, 소처럼 좁디좁은 철창 우리에서 자라요. 좁은 철창에서 자라다 보면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피부가 상해 뼈가 드러나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제자리를 뱅글뱅글 도는 등 이상한 행동도 해요. 그런데도 치료는커녕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살아요. 갇힌 동물의 건강을 돌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동물의 털만 가져갈 뿐 동물의 건강에 별 관심이 없죠. 털뿐만 아니라 가죽을 얻을 때도 사람은 동물한테 큰 고통을 줘요. 살아 있을 때 얻는 가죽이 질이 좋기 때문이래요.

끔찍한 방법을 써서 밍크나 여우 같은 동물의 털과 가죽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된 소비자들은 옷 만드는 회사에 이야기했어요. "당신들 회사에서는 동물을 너무 괴롭히고 있소!"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털을 빼앗는다면 당신네 회사에서 만든 옷을 사지 않겠소!" "더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마시오!"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자 털옷을 파는 회사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떤 회사들은 '양고라'라는 토끼의 털이 들어간 옷을 더 이상 만들지 않기로 정했어요. 양고라 토끼는 그동안 털을 얻는 사람한테 크나큰 고통을 받은 토끼예요.

동물 털옷 소비를 반대하는 사람들

밍크털 같은 모피를 입지 말자고 운동을 벌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운동을 해서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모피를 입지 않겠다고 개인 블로그에 밝히기도 하고, 캠페인을 하기도 해요. 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벌이기도 하지요. 온라인 카페 같은 커뮤니티를 만들어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머리를 맞대기도 해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모피 패션쇼가 열리기로 계획된 적이 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이 모피 패션쇼가 열리는 것을 반대했어요. 털을 빼앗기는 동물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얼마나 끔찍하게 죽었는지 아는 사람들이었지요. 서울시에서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결국 패션쇼는 취소되었어요.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말한다면 고통을 겪는 동물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오리털이나 거위털을 쓰지 말자고 선언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기 자신과 약속하는 거지요. 그럼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생각한 것을 더 잘 실천할 수 있을 거예요.

추위를 너무 많이 타기 때문에 모피 코트가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인조털로 만든 따뜻한 옷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2018.12.12. 어린이조선일보 한미경]

인조가죽 쓴 무스탕·페트병으로 만든 패딩

모피보다 따뜻한 ‘비건 패션’

친환경 소재로 만든 의류 붐물

올해 패션업계의 핵심 키워드는 ‘비건(완전한 채식주의자)’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패션업계에서도 화두가 되면서다. 패션업계에서는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제품에 주목하고 있다.

15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가치소비에 눈을 뜬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위한 친환경 상품이 본격 출시되고 있다. 브랜드별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르다. 버려진 페트병을 재활용한 제품을 출시하는 브랜드가 있는가 하면,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브랜드도 있다.

국내 패션기업 한세엠케이의 캐주얼 브랜드 앤듀는 동물성 원료를 쓰지 않은 무스탕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비건 스웨이드 원단을 사용했다. 패션업체는 새끼 양이나 송아지의 가죽으로 부드러운 스웨이드 원단을 제작해 상품을 판매해왔다.

환경단체들이 가죽 원단을 문제 삼으면서 패션기업들은 인조 스웨이드를 사

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한세엠케이 관계자는 “비건 의류는 동물성 소재를 사용하지 않고 염색용 화학약품을 배제했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인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아웃도어 브랜드에서도 페페트병을 활용한 제품을 내놓고 있다. 노스페이스는 에코플라에어다운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서울과 제주에서 수거한 페페트병을 활용한 소재를 사용해 겹감을 제조했다. 윤리적 다운 인증(RDS)을 받은 거위털 충전재를 사용하는 등 동물 학대를 최소화했다.

아웃도어 브랜드 나우도 친환경 다운 재킷 나우타프다운을 선보였다. 바다에 버려진 페그물을 재활용한 나일론을 겹감으로 썼다. 이 제품의 충전재도 동물 복지를 고려해 RDS 인증을 받은 오리털 충전재를 사용했다.

인디에프의 캐주얼 브랜드 테이트는 친환경 신소재인 솔라볼 충전재를 사용한 솔라볼패딩을 공개했다. 솔라볼 충전재는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 스스로 열을 내는 첨단 소재로 동물성 충전재의 대체재로 불린다. **배정철 기자**



거위·오리털 벗어던지고 페트병·옥수수를 입다

패션·뷰티업계도 비건 스타일

동물복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건' 트렌드는 패션·뷰티업계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거위, 오리의 털을 겨울용 외투 충전재로 사용해 오던 아웃도어 업계에선 최근 몇 년 사이에 친환경 소재 개발에 나섰다. 노스페이스가 대표적이다. 국내 노스페이스 사업권을 가진 영원아웃도어는 다운을 대체하기 위한 친환경 인공 충전재 '브이모션'을 2014년 처음 개발했다. 최근에는 페트병을 재활용한 소재, 옥수수에서 추출한 바이오 원료로 충전재를 개발하는 단계까지 진화했다.

노스페이스는 2016년 동물의 모피를 쓰지 않겠다는 '100% 퍼 프리'를 선언했다. 최근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삼다수, 효성티앤씨 등과 친환경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제주에서 수거한 100t의 페트병을 재활용해 의류 제작에 나섰다.

패션업계에서 비건 트렌드는 명품 업체들이 선두에 나서면서 대세로 자리잡았다. 2016년 '구찌'와 '지미추' '톰포드' 등이 동물의 모피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샤넬' '아르마니' '스텔라맥카르티' '베르사체' '버버리' '코치' 등이 동참했다. 동물 학대를 반대하는 환경운동단체들의 주장을 반영했지만 비건 제품을 더 선호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트렌드도 고려한 전략이다.

뷰티업계에서도 동물성 소재를 쓰지 않고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크루얼티프리(cruelty-free)'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선 2009년 동물대체시험법을 연구하기 위한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가 설립됐다. 화장품의 안전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동물을 학대하는 연구 과정을 대체할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기업 중에선 아모레퍼시픽이 2013년 3월 '화장품에 대한 불필요한 동물실험 금지 선언'을 발표했다. 2008년부터 화장품 원료와 완제품에 대해 자체 동물 실험을 금지해온 아모레퍼시픽은 2013년 5월부터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했다.

최근 비건 화장품 브랜드도 늘고 있다. 육아전문 기업인 메디앙스는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 동물성 성분을 넣지 않는 비건 보디용품을 다음달 선보인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클레어스'는 지난해 한국비건인증원으로부터 스킨케어 브랜드 최초로 비건 인증을 획득했다.

미국 컨설팅 전문업체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비건 화장품 시장 규모는 153억달러(약 17조원)였다. 2025년에는 208억달러(약 2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